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2018
Happy
New
Year

KBS A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KBSN PLUS

KBS N
magazine

VOL.22 JANUARY. 2018 KBS N

새해에는
기분좋은일들만
가득하세요

KBS N magazine

VOL.22 JANUARY. 2018 KBS N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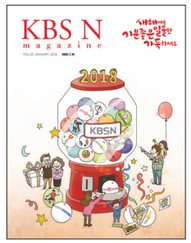
한국방송의 풍부한 경험과 노하우를 바탕으로 창조성과 전문성을
키워 뉴미디어를 선도하며, 급변하는 미래 방송 환경을 주도하는 일류
방송기업으로 도약해나가고 있습니다.

발행인 이준용
발행일 2018. 1. 8
주소 서울시 마포구 매봉산로 45 KBS미디어센터
전화 02-787-3455
기획 정책기획팀 정윤재, 손영주
제작 · 디자인 DNC www.thednc.co.kr

www.KBSN.co.kr

〈KBS N 매거진〉은 매달 첫째 월요일에 발행됩니다.
매거진에 대한 의견이나 정기 구독, 기사 제보는 메일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정책기획팀 pr@kbsn.co.kr

창의적인 기업문화와 트렌디한 정보가 담긴 KBS N 매거진을 온라인 홈페이지에서도 만나보세요.
www.kbsn.co.kr/magazine.do



Cover Story
모두를 위한 크리에이티브를 만드는 KBS N! 남녀노소 모두가 즐길 수 있는 KBS N 6개 채널의 즐거움을 따뜻한 느낌의 일러스트를 통해 담아냈다.

04
CEO letter
이준용 대표이사 신년사

06
N focus
KBS N 2018 시무식 현장을 가다

08
N special
2018 방송트렌드 전망

10
N program 1
새로운 화제를 몰고 올
KBS N 자체제작 프로그램!

13
N program 2
1월엔 무얼 볼까?
채널별 추천 프로그램!

14
Interview
친근한 해설, 편안한 목소리로
'채널 고정'하게 만드는 스포츠계 두 전령사

16
Issue
"그뤠잇 투게더"
2017-2018 WKBL 올스타전

18
Inside
2017년 한국프로야구를 빛낸
양현종, 손아섭, 민병헌 선수를 만나다!

20
N news
KBS N 2017년 종무식으로 한 해 마무리

22
Notice
띠별로 보는 2018년 한 해 운세!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본부터 준비하고 시작하는 KBS N이 됩시다

2018 중점 추진과제

01
콘텐츠 경쟁력 강화

02
스포츠 제작의 효율성

03
UHD 미래 방송기술 대비

04
채널 수익 기반과 사업 연계

사랑하는 KBS N 가족 여러분!

2018년 무술년(戊戌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올 한 해도 임직원 여러분의 모든 소망과 목표가 이루어지길 기대하며 여러분 가정에서도 건강과 행복이 충만하길 바랍니다. 2018년은 황금개의 해입니다. 개의 충성심과 용맹성을 본받아 KBS N 가족 여러분 모두가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시길 기원합니다.

올해 경제 성장률이 3%대로 지난해보다 성장세가 소폭 둔화할 것이라고 합니다. 국내 광고 시장은 큰 변화 없이 케이블 TV 광고는 지속적으로 줄어들며 온라인 시장만 나 홀로 성장할 것으로 예측되고 있습니다. 이런 어려운 환경 속에서 KBS N은 2018년을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KBS N 브랜드 가치 상승 원년의 해"로 삼고자 합니다.

이를 이루기 위해서 몇 가지 중점 추진과제를 공유하고자 합니다.

첫째. 투자 재원 확보를 통해 자체제작 콘텐츠 경쟁력을 강화하겠습니다. 〈KBS N 문화펀드〉,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투자 추진으로 제작 예산을 확보, 자체제작 콘텐츠 투자를 추진해 젊은 층을 위한 콘텐츠 제작에 나서겠습니다.

둘째. 스포츠 제작 역량 강화 및 수익형 킬러 콘텐츠 개발입니다. 제작 시스템 개선, 인력 재배치 등 비용 절감을 통해 스포츠 제작의 효율성을 높이겠습니다. 올해로 10주년을 맞는 〈아이러브베이스볼〉 10주년 캠페인을 집중 홍보하고 〈평창동계올림픽〉 등 국제 스포츠 이벤트 제작에 참여해 역량을 강화하겠습니다.

셋째. UHD 시대를 준비하는 미래 방송기술 경쟁력 확보입니다. IP 기반 시스템 및 UHD 시스템을 대비한 인적, 물적 인프라를 구축하고 시스템 투자비용 유치와 기술적 부가가치를 창출하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넷째. 채널 수익 기반 마련과 사업 연계성 강화입니다. 조이 채널은 수익 앵커 채널로서 성장시키고 스포츠 채널은 프로야구 매출 1위 채널로 도약하겠습니다. 어린이 체험전인 〈키즈월드〉, 〈출발키즈드림팀〉을 확장하고 대행사, 방송사와 협력관계를 강화해 대행 사업을 수주하는데 역량을 모으겠습니다.

사자성어 중 '등고자비(登高自卑)'라는 말이 있습니다. 높은 곳에 오르려면 낮은 곳에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뜻으로,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는 말입니다. 우리도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본부터 하나씩 하나씩 계획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중요합니다. 차근차근 모든 일을 순서에 맞게 진행하고 노력하면, 연말에 우리 모두가 기뻐하며 웃을 수 있을 것입니다.

KBS N 가족 여러분! 미래를 내다보며 성장할 수 있는 초석을 이 시간부터 마련합시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같은 목표를 향해 우리 모두 함께 나아 갑시다. 다시 한번 2018년 한 해 우리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길 바랍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대표이사 이 준 용

2018년은 KBS N의 브랜드 가치 상승 원년의 해!

**2018년 무술년 황금 개띠해가 밝았다.
KBS N은 시무식을 개최하고 힘차게 각오를 다지며 새해 업무를 시작했다. 치열한 국내 방송시장 속에서 미래성장의 새로운 돌파구를 찾기 위한 힘찬 다짐의 현장이었다.**

콘텐츠 경쟁력 강화로 KBS N의 새로운 시대 개막!

지난 1월 2일 KBS N이 시무식을 갖고 활기찬 새해를 열었다. KBS 미디어센터 심석홀에서 열린 시무식은 이준용 대표이사를 비롯해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이호근 아나운서의 사회로 서로 새해 덕담을 나누며 시작되었다.
KBS N 이준용 대표이사는 "2018년은 충성심과 용맹심이 매우 뛰어난 황금 개의 기운으로 함께 목표를 향해 용기 있게 나아가자"고 강조했다. 또한 "콘텐츠만이 우리가 살아갈 유일한 길이라 확신하고 있다"며 "2018년은 콘텐츠 경쟁력 강화를 통한 브랜드 가치 상승 원년의 해로 삼을 것"이라고 포부를 전했다.

이를 위해 올해 중점적으로 추진할 과제로 ▲ 젊은 층을 위한 새로운 콘텐츠 제작 ▲ 제작시스템 개선과 인력 재배치 등을 통한 스포츠제작 역량 강화 ▲ 체제적인 시스템 관리를 통한 안정적 기술운영으로 UHD 미래 방송기술 대비 ▲ 수익기반을 통한 사업연계성 강화 등 총 4가지 과제를 강조했다.
KBS N은 특히 〈아시아문화중심도시 육성펀드〉 등 투자 추진으로 제작 예산을 확보하고, 투자 확보를 통해 자체콘텐츠를 제작하며 채널별 경쟁력을 강화해나갈 계획이다.

"서로 협력하고 존중하며
2018년에는 모두가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합시다.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랍니다."

위기를 타개하기 위한 출발점은 협력과 존중!

이준용 대표이사는 이날 시무식에서 '등고자비'(登高自卑, 높은 곳에 이르려면 낮은 곳에서 출발해야 한다)의 정신을 일컬으며 다시 한 번 임직원들에게 목표를 향해 정진해가자는 독려의 말을 전했다.
"모든 일에는 순서가 있다. 목표를 이루기 위해 기본부터 하나씩, 계획대로 준비하고 시작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한다"며 "우리도 순서에 흐트러짐 없이 차근차근 일을 진행하고 노력하면 올 연말에 모두가 기뻐하고 함께 웃을 수 있을 것"이라고 희망찬 덕담을 건넸다.
마지막으로 "2018년에는 원하는 목표를 이룰 수 있도록 함께 노력하자"며, "임직원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시고 건강하시길 바란다"고 신년사를 마무리했다.

2018년, 말이 아닌 행동으로 조직문화를 가꿔나가고, 임직원 한 명 한 명이 만들어지지 않은 길을 개척해나가는 선구자로서의 역할을 담당하여 미래를 내다보며 성장해나가는 KBS N이 되길 기대해본다.

해외시장의 가능성을 여는 해!

2018 방송트렌드 전망

해외시장에 우리나라 드라마 리메이크작, 예능프로 포맷들이 줄줄이 성공적으로 수출되며 2018년은 국내 콘텐츠가 해외 사업자들에게 크게 주목을 받게 될 것이라고 점쳐지고 있다. 미국을 넘어 동남아시아 시장 진출, 글로벌 플랫폼을 이용한 유통까지 세계 방송 콘텐츠 시장의 판도와 함께 그에 따른 대안방법 등을 살펴본다.

글. 조영신 (SK경영경제연구소, Ph.D)

2017년을 휩쓴 키워드 'YOLO'!
2018년엔 무엇이 가장 뜨거울까?

2017년 방송가에서는 라이프 트렌드 'YOLO'와 여행을 접목한 프로그램과 교양과 예능이 콜라보된 인문학 프로그램 등이 한 해 큰 반향을 일으켰다. 이와 함께 드라마 쪽에서는 오피스, 청춘, 추리 등 장르물이 호평을 받으며 좋은 성적을 거뒀다.
2018년에는 현재까지 방송사별로 관찰 리얼리티 예능, 오디션 프로그램들이 연달아 히트를 치고 있는 가운데 2018년에도 비슷한 프로그램들이 방송될 것으로 보인다.
또한 '1인 방송(동영상) 시대'를 맞아 무엇보다 미디어 콘텐츠 이용자들이 방송에 주도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콘텐츠가 방송 트렌드를 이끌어갈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미 넷플릭스와 HBO, CBS 등 해외 굵직한 방송사들도 인터랙티브 콘텐츠 사업에 뛰어들며 혁신적인 콘텐츠 개발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다.

해외 방송사업자 한국 콘텐츠에 관심을 보이다!

한국 드라마가 태평양을 넘었다. 2017년 ABC는 한국 드라마인 〈굿닥터〉를 리메이크했다. 결과도 좋았다. 〈굿닥터〉는 18~49세의 평균 시청률이 1.7%로 약 940만이 시청을 했다. 1.7%의 시청률이라고 폄하하지 말자. 동일 시간대에서 1위를 한 The Voice(NBC)의 시청률이 1.9%였다. 1.7%는 상당히 높은 시청률이다. 일각에서는 시즌제가 될 가능성을 조심스럽게 점치고 있다. 시즌제는 성공의 바로미터다. 미국시장에서 시즌제를 목표로 엄청나게 많은 드라마 파일럿들이 서로 경쟁하고 있다. 이런 상황에서 한국 드라마를 리메이크한 작품이 의미 있는 성과를 거두었다. 미국 방송사업자들이 한국 드라마에 관심을 가질 수 있는 기본적인 요건이 마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더구나 〈굿닥터〉는 그 험난하고 자잘한 법률적 규정들을 다 준수하고 포맷 수출이 된 첫 사례다. 이 과정을 통해 국내 사업자들은 북미 시장 포맷 수출의 문법을 익혔다. 처음이 어렵지 두 번째는 상대적으로 쉽다.
2016년 〈판타스틱 듀오〉는 국제적인 제작회사인 Banijay International과 손을 잡고 유럽 시장 진출 계약을 체결했다. 2017년 5월 10일 스페인에서 첫 방송을 한 이래로, 5회가 시청률 10%를 넘는 쾌거를 달성하면서 〈시즌 2〉로 이어질 가능성을 높였고, 스페인을 넘어서 인근 유럽 지역으로 포맷 수출이 확장될 가능성을 열었다. 〈판타스틱 듀오〉 역시 한국의 포맷 수출의 한 획을 그었다. 소위 〈포맷〉을 위한 백과사전이 만들어졌고, 이 백과사전에 따라서 해외 어느 지역에 수출하더라도 일정한 가이드와 포맷의 형식을 유지할 수 있는 토대를 만들었다. 이제는 포맷의 전형을 그대로 유지할 수 있는 물리적 조건을 만든 셈이다. 그런가 하면 뉴욕타임스는 2017년 최고의 드라마 쇼를 선정하면서 해외 부문에 당당히 한국 드라마인 〈비밀의 숲〉을 올렸다. tvn이란 이름 대신에 netflix의 작품으로 올라간 것이 조금 아쉽긴 하지만 분명하게 South Korean Drama란 용어가 각인되어 있다.
예전에도 포맷 수출은 있었다. 그러나 준비된 포맷 수출은 이제 시작이다. 〈굿닥터〉가 한국 콘텐츠의 리메이크로도 미국의 격심한 드라마 시청률 경쟁에서 성공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었고, 〈판타스틱 듀오〉가 한국 예능 프로그램이 유럽시장에 진출해서 주류 시간대에 높은 시청률을 기록할 수 있다는 것을 확인시켜 주었으며, 〈비밀의 숲〉(영어명 Stranger)도 주목해야 할 해외 방송 프로그램으로 주목을 받았다. 확인되었으니, 해외 방송사업자들이나 기획사들로부터 주목을 받을 것은 예정된 수순이다. 더구나 이들 상품들은 과거와는 다르게 판권 판매나 포맷 판매의 자잘한 세부 항목들을 일정한 수순대로 다 밟아가면서 제대로 진입한 작품들이다. 시장은 이렇게 열린다. 2018년은 국내 콘텐츠가 해외 사업자의 주목을 받는 해다.

두드리면 열린다! 동남아시아가 더욱 가깝게

동남아시아 시장은 국내 방송사업자들에게는 계륵 같은 곳이다. 지불 의사는 낮았고, 불법은 넘쳤다.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자국 방송사업자의 영향력이 컸다. 한때 동남아시아를 공략한 적이 있지만, 남은 것은 상처였고, 패배였다. 때 지난 콘텐츠를 헐값에 유통시키는, 어쩌면 콘텐츠 시장의 막장에 가까웠다. 그래서 가지 않으려 했다. 그런데 중국이 막혔고, 일본에선 숨 고르기가 시작되었다. 국내 시장에서 수익이 막혀 있던 상황에서 무엇이든 해야 했다. 과거와는 다른 그림을 그리기 시작했다. 과거처럼 콘텐츠를 단순 판매해서는 일말의 기대도 할 수 없었고, 그렇다고 예전처럼 해당 국가에서 콘텐츠를 직접 제작하는 것도 무모하다. 그래서 SBS는 커머스를 매개로 삼았다. 베트남과 인도네시아의 진입 전략은 사뭇 다른 것처럼 보이지만, 가는 방향은 같았다. 주어진 조건을 극복의 대상으로 삼는 것이 아니라 주어진 조건을 인정하고 활용하고자 했다. 인도네시아는 홈쇼핑 사업자와 손을 잡았고, 베트남은 공짜로 콘텐츠를 뿌리다시피 했다. 그리곤 커머스(Commerce)와 연결시키고자 했다. 2017년도에 밑밥을 뿌렸다면, 2018년도에는 싹을 봐야 한다. 가능성을 엿보았으니, 가능성을 현실로 구현하는 방법에 대해서 고민해야 하는 시기다.

글로벌 플랫폼, 한국 시장의 변화를 야금야금 도모하다

2017년 JTBC와 CJ E&M은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제공했다. SMR 등의 반발도 있었지만, 그들로서는 선택해야 했다. 중국 매출이 감소하는 상황에서 JTBC는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해서라도 수익을 맞추어야 했다. 상대적으로 직접 진출의 노하우나 고리가 없는 JTBC는 2018년에도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할 수 밖에 없다. 1년의 경험이 있으니, 조금 더 현실성 있는 콘텐츠 수급 대가를 받을 것이다. CJ E&M도 마찬가지다. 초기에는 단품 계약이었고, 일부 콘텐츠는 비독점 계약이었다. 그러나 2018년부터는 연간 계약으로 전환할 것으로 보인다. 관계의 차원이 높아졌다. 넷플릭스의 글로벌 전략에 편승해서 일부 콘텐츠의 경우에는 글로벌 독점 공급 계약을 체결하기도 했다. 〈비밀의 숲〉은 글로벌 레퍼런스를 갖게 되었다. 뉴욕타임스에서 올해의 해외 드라마로 〈비밀의 숲〉을 선정한 것이다. 넷플릭스에 콘텐츠를 공급한 지 채 1년도 되지 않아 생긴 성과다. 이제는 넷플릭스를 활용하는 전략이 달라질 개연성이 있게 된다. 초기에는 매출액 확대가 목적이었다면, 이제는 특정 콘텐츠에 따라서 글로벌 유통을 위한 수단으로 넷플릭스를 활용할 수 있는 상황이 될 수도 있다. 그렇다면 선택이 분명해진다. 넷플릭스에 대한 공급은 지속적으로 늘어날 것이고, 그만큼 플랫폼 진영이 느껴야 하는 위기감과 조급함은 시차를 가리지 않고 올 것이다. 콘텐츠 진영이라면 대안이 생긴 셈이다.
세상은 변화하고 있으나 우리가 주도하는 변화는 아니다. 거부할 수 없는 것이라면 변화된 세상에 적응하고 대응해야 하는 과제만 남았다. 버릴 것은 버리되, 대응의 기회를 버리는 일은 없어야 한다. 2018년의 과제다.

글쓴이. 조영신
언론학회와 방송학회의 협력이사, 기획이사 역임, SK경제경영연구소 수석연구원.
방송콘텐츠의 유통 및 변화의 방향에 대한 날카로운 통찰력을 바탕으로, 컨퍼런스 강연 및 토론 등에 활발하게 참여하며 행동하는 언론학자로 활동을 펼치고 있다.

더욱 강력하고 풍성한 2018 라인업!

새로운 화제를 몰고 올 KBS N 자체제작 프로그램!

2017년 한 해 신선한 기획과 시도로 자체제작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한 KBS N이
2018년에는 더욱 차별화된 프로그램으로 시청자들을 찾아간다. 인기 프로그램의 후속편부터
신규 편성될 프로그램까지, 2018년 새로운 화제를 몰고 올 기대작들을 미리 만나본다.

오리지널 콘텐츠 경쟁력 강화
KBS N 자체제작 프로그램 출격 준비 완료!

KBS N은 급변하는 방송 환경 속에서 차별화된 콘텐츠를 선보이며 그 영역을 확대해왔다. 2018년에도 시청자의 일상에 색다른 웃음과 행복을 더하고, 브랜드 이미지를 강화하기 위한 화제성과 사업성을 갖춘 KBS N 자체제작 프로그램들을 준비했다.

우선 온라인에서 다양한 이슈를 생산하며, 전 연령층으로부터 많은 사랑을 받은 〈차트를 달리는 남자〉와 미니멀 라이프를 추구하는 강제 집 다이어트 프로젝트 〈닥터하우스〉 시즌 2가 2017년의 여세를 몰아 올해에도 안방으로 찾아간다. 또한 온라인에서 화제가 되는 영상을 소개하는 〈꿀잼 TV 양세형의 짤방공작소〉는 MC 양세형의 입담과 더불어, 시청자 제보 짤방 등으로 시청자와 공감대를 형성해나가며 생생한 웃음으로 시청자층을 점차 확대해나갈 예정이다.

그동안 다양한 뷰티 트렌드와 정보를 전달하며 젊은 여성의 지지를 받아온 〈뷰티 바이블〉은 〈뷰티 바이블 in 베트남〉편을 통해 명실상부한 대한민국 대표 뷰티 프로그램으로서 K-뷰티 메신저의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된다. 이와 함께 리얼 연애 토크 〈연애의 참견〉, 전국 예고의 도장 깨기 배틀 〈예고 예능〉 등 2018년 신규 제작하는 프로그램들도 출격을 기다리고 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

〈차트를 달리는 남자〉의 거침없는 질주

스타들의 별별 랭킹, 세상 속 신기하고 재미있는 이야기를 차트로 구성해 소개하는 〈차트를 달리는 남자〉가 2018년에는 또 어떤 이슈들을 만들어낼지 기대를 모은다. 아이돌 최강 센터, 보험 들어주고 싶은 핫바디 스타 등 소개하는 차트마다 각종 인터넷 커뮤니티, SNS에서 뜨거운 찬반 논쟁으로 이어지며 이슈를 만들어냈고 세계의 이색 교도소, 오싹한 여행지, 지구 최강 영재 등 세계 곳곳에서 벌어지는 이야기들의 랭킹으로 후속 기사를 양산했다.

〈차트를 달리는 남자〉는 지난해 가구 최고 시청률 1.03%, 타깃 최고 시청률 2.30%를 각각 기록하면서 KBS Joy 채널 시청률을 견인해왔다. 10대 시청자까지 전 연령층을 시청자로 확보하며 채널 인지도와 브랜드 이미지를 높이는 데 앞장섰고, KBS Joy 채널의 간판 예능 프로그램으로서 오리지널 콘텐츠의 경쟁력을 입증했다. 대세남 이상민과 예능 신생아로 합류한 조우종 두 MC 또한 회를 거듭할수록 환상적인 호흡을 자랑하고 있어 2018년에도 〈차트를 달리는 남자〉의 질주를 기대하게 만든다.

꿀잼 TV 양세형의 짤방공작소

웃음 폭탄 〈꿀잼 TV 양세형의 짤방공작소〉

〈꿀잼 TV 양세형의 짤방공작소〉는 전 세계에서 실시간으로 만들어지는 기발한 영상을 모아 복잡하고 팍팍한 현실을 잠시 잊고 쉬어갈 수 있는 웃음 폭탄을 선사한다. 1인 미디어가 보편화되고 누구나 화제의 중심이 될 수 있는 시대에 기존 방송 프로그램과는 차별화한 시각과 구성으로 일찌감치 화제를 몰고 온 KBS N의 자체제작 프로그램이다.

단독 MC 양세형은 예고편만으로 기대감을 높였고 2017년 12월 첫 주 드디어 공개된 첫 회에서부터 촌철살인 코멘트로 예능 대세의 면모를 여지없이 보여줬다. 10대의 독특한 언어를 다룬 '급식체' 편은 10대, 20대 젊은 시청자들은 물론 새로운 인터넷 이슈에 관심이 높은 시청자들의 호기심을 자극했다. 2018년에도 〈꿀잼 TV 양세형의 짤방공작소〉는 전 세계 유머와 트렌드를 망라해 자연스럽고 신선한 웃음을 더 많은 시청자와 공유하는 기회를 만들어갈 것이다.

연애의 참견

센 언니들의 현실 연애 토크 〈연애의 참견〉

세상 사람의 숫자만큼 만남의 종류는 다양하고 사연은 제각각이다. 그래도 남들의 연애 이야기에 참견하고 싶어지는 것은 사랑하고 사랑받고 싶은 욕구가 모두에게 존재하는 보편적인 것이기 때문이다. 보편적인 연애 감정과 양상을 솔직 담백하게 이야기하는 〈연애의 참견〉이 2018년 1월 첫 방송을 앞두고 있다. 연애 중 겪는 여러 가지 상황, 고민을 풀어 놓고 각자의 경험과 연애관을 공유하는 리얼 토크쇼다. 여자 예능을 이끌어가는 김숙, 최화정이 현실적이고 거침없는 발언으로 본격 로맨스 파괴를 주도한다. 웃음을 유발하는 황당한 사연과 감동의 에피소드를 넘나들며 현실 연애의 생생한 이야기보따리가 펼쳐진다.

뷰티바이블 in 베트남

뷰티와 여행의 만남
〈뷰티바이블 in 베트남〉

〈뷰티바이블〉은 전 세계에서 우수성을 인정받는 K-뷰티의 핵심을 콕콕 짚어 알려주는 KBS N 전문 뷰티 자체제작 콘텐츠다. 스타의 뷰티 콘셉트와 노하우, 스타가 즐겨 사용하는 제품까지 아낌없이 공개하며 젊은 여성이 선호하는 프로그램으로 자리 잡았다. 2018년 5월에는 K-뷰티와 여행의 특급 컬래버레이션, 〈뷰티바이블 in 베트남〉으로 돌아온다. 베트남은 K-뷰티와 한류에 관심이 높은 국가 중 한 곳이며 베트남을 방문하는 한국 관광객들도 갈수록 늘고 있다. 한국과 베트남의 스타와 뷰티 전문가가 베트남의 핫 플레이스를 여행하며 두 나라의 뷰티 트렌드를 공유하고 셀프 메이크업에 유용한 꿀팁을 안내한다.

닥터하우스 시즌 2

강제 집 다이어트 프로젝트
〈닥터하우스 시즌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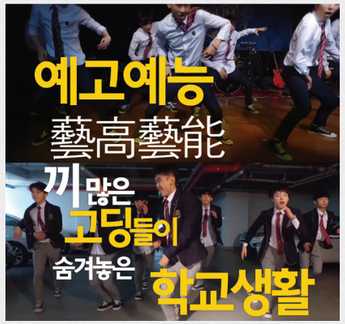
〈닥터하우스〉는 미니멀 라이프로 사는 법을 보여주는 리얼 예능으로, 프로 살림꾼 박미선과 정리의 달인 서장훈이 정리수납 전문가와 함께 정리되지 않은 집을 방문한다. 언젠가는 쓸 것 같다는 막연한 기대와 소중한 추억이 담긴 물건이라는 이유로 버리지 못하고 공간을 잠식하도록 방치했던 것들을 쓱쓱 골라 버리고 정리해주는 과정이 생생하게 그려진다.

'버릴수록 잘 산다'라는 모토로 화제를 모은 〈닥터하우스〉는 지난해 KBS 2TV에 편성돼 지상파 역진출에 성공하며 첫 회 방송으로 4.6%의 가구 시청률과 네이버 검색어 실시간 1위를 기록했다. 시대의 트렌드를 반영한 신선한 기획으로 KBS N 자체제작 콘텐츠의 힘을 보여준 〈닥터하우스〉는 2018년 6월 시즌 2로 돌아와 한층 업그레이드된 정보와 재미를 선사할 예정이다.

예고 예능

꿈과 끼의 한판 승부 〈예고 예능〉

미래의 스타 혹은 아티스트를 꿈꾸는 예술고등학교 학생들. 이들의 학교생활은 어떤 모습일까. 또 이들 중 진짜 실력자는 누구인가. 〈예고 예능〉이 전국 28개 예술고등학교를 차례로 찾아가 도장 깨기 배틀을 신청한다. 댄스, 보컬, 악기 등 각 부문의 숨은 실력자를 발굴하는 한편, 실력을 쌓기 위해 구슬땀을 흘리는 학생들의 연습 현장을 생생하게 담는다. 화제의 주인공에게는 좀 더 빨리 세상으로 나오는 기회가 되어주고 시청자들은 꿈을 향한 순수한 열정, 노력, 10대의 우정을 통해 진한 감동을 만날 수 있을 것이다.



화제성에 재미까지 최고!

1월엔 무얼 볼까? 채널별 추천 프로그램!

새로운 한 해를 시작하는 1월, 생활에 활력과 즐거움을 선사할 KBS N의 6개 채널별 놓칠 수 없는 프로그램을 꼽아 소개한다.

KBS drama

세대 불문 공감 가족 드라마 〈황금빛 내 인생〉

시청률 40%를 돌파하며 주말드라마 시청률 1위를 지키고 있는 〈황금빛 내 인생〉. 서지안(신혜선)과 최도경(박시후)이 쉐어하우스에서 함께 살게 되는 이야기와 서태수(천호진)의 병이 악화되는 모습 등 극의 전개가 후반부로 향하며 흡입력을 높여가고 있다.

수목극 10% 돌파! 판타지멜로 드라마 〈흑기사〉

영원히 죽지 않는 미지의 인물들과 그 힘에 운명이 엮인 남녀의 200년에 걸친 러브스토리를 담아낸 판타지멜로 드라마다.

KBS joy

생전 처음 보는 로맨스 파괴 토크쇼! 〈연애의 참견〉

센 언니 최화정, 김숙이 들려주는 '일단 까고 보는' 미친 연애의 모든 것. 우리 모두 겪어봤을 현실 연애에 대한 고민들을 〈연애의 참견〉에서 속 시원히 풀어준다!

모아보면 더 웃기다 〈꿀잼 TV 양세형의 짤방공작소〉

세상의 모든 영상들을 샅샅이 발굴해서, 제일 재밌는 영상들만 골랐다! 개짤렉터(개그맨+짤방 컬렉터)이자 짤방 공작소 소장인 양세형이 현웃 터지는 영상들을 모아 소개해준다.

KBSNSPORTS

겨울 스포츠의 꽃 프로배구 V-리그

프로배구 주관 방송사인 KBS N SPORTS가 올해도 V-리그의 뜨거운 현장의 모습을 생생하게 안방에 전달하고 있다. 배구 중계와 배구매거진 〈스페셜 V〉까지 KBS N SPORTS에서 만나보자.

KBS W

스타들의 메이크업이 궁금하다면?
〈지니의 댄싱 뷰티〉

SNS에서 활약하고 있는 뷰티 크리에이터 지니가 5분 안에 메이크업과 의상, 커버댄스 미션까지 선보이는 〈지니의 댄싱뷰티〉에서 화제의 뷰티팁을 배워보자.

KBS Kids

이번엔 공룡이다! 메카 어드벤처 애니메이션
〈공룡메카드〉

밝고 건강한 개구쟁이 소년 나용찬이 작은 공룡을 발견하면서부터 벌어지는 에피소드를 담았다. 타이니소어(미니공룡)에서 거대 공룡으로 변하는 모습과 공룡들이 펼치는 배틀이 관전 포인트!

KBSN Life

18년 간 확고부동한 존재감,
다큐미니시리즈 〈인간극장〉

KBS N Life 채널은 18년간 이어온 KBS의 독보적인 간판 휴먼다큐멘터리 〈인간극장〉을 주말 오전에 편성해 지친 현대인들에게 감동적인 여운을 선사한다.

WKBL은 KBS N SPORTS에서!

친근한 해설, 편안한 목소리로 ‘채널 고정’하게 만드는 스포츠계 두 전령사

재치 있는 입담과 특유의 친화력으로 사랑받고 있는 KBS N SPORTS 김기웅 아나운서와, 해박한 스포츠 지식과 선수들과의 돈독한 친분으로 농구 칼럼니스트, 해설위원 등 활발한 활동을 펼쳐나가는 김은혜 해설위원. 지난 12월 24일 열린 올스타전 현장에서 농구 없이 못 사는 뼛속까지 농구인인 두 남녀를 만나 여자프로농구의 매력과 함께 후반기 관전 포인트를 짚어봤다.

김은혜 해설위원

편안한 목소리로 시청자들에게 친숙하게 다가간다는 평가를 받고 있어 기쁩니다. 앞으로도 KBS N SPORTS 중계방송에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김기웅 캐스터

김기웅 캐스터는 여자프로농구 다섯 번째 시즌을, 김은혜 해설위원은 두 번째 시즌을 함께 하고 계신데요, 소감이 어떠신가요?

김기웅 스포츠 캐스터가 된 가장 큰 이유 중 하나는 농구 경기를 중계하고 싶었기 때문이었어요. 여자프로농구는 다섯 번째 시즌 중계인데, 제가 좋아하는 농구로 시청자 여러분께 인사드릴 수 있어 감사할 따름입니다.

김은혜 여자프로농구 중계를 위해 많은 스태프가 이른 시간부터 나와 준비하는지 선수 때는 몰랐습니다. 선수 생활과는 다른 매력이 있어요. 선수들을 가까이서 보고, 시청자들과 소통하는 재미도 있고요. 요즘은 외부에서도 KBS N SPORTS의 WKBL 중계방송이 좋은 평가를 얻고 있어 기분이 좋습니다.

두 분은 중계방송에서 환상 호흡을 맞추고 계신데요, 서로의 장점을 소개해 주세요.

김기웅 김은혜 해설위원은 농구선수로, 국가대표로 오랫동안 활약해 온 데다가 철저히 준비하기 때문에 제가 공부를 아무리 많이 한다 하더라도 따라갈 수 없어요. 경기를 빼곡히 기록한 ‘비밀 노트’도 갖고 계시죠. 농구 칼럼니스트로도 활동 중인데 유시민 작가 못지않은 필력을 자랑한답니다.

김은혜 ‘비밀 노트’에는 여자프로농구팀의 경기 패턴과 지난 경기 분석이 담겨 있는데요, 손으로 직접 써야지 머릿속으로 정리되더라고요. 김기웅 캐스터는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시죠. 제가 말이 그다지 많지 않거든요. 자체 ‘음소거’가 될 때도 있어요(웃음). 그럴 때면 김 캐스터가 순발력을 발휘해 방송에 활력을 불어넣어 주세요. 위트가 넘치기 때문에 제가 ‘빵’ 터지는 포인트가 있습니다. 덕분에 즐겁게 방송하고 있습니다.

김기웅 캐스터는 인스타그램에 ‘웅터뷰’ 코너를 직접 편집까지 해서 지속적으로 올리고 있는데요, ‘웅터뷰’를 진행하는 이유를 소개해 주세요.

김기웅 예전보다 농구의 인기가 떨어졌어요. 여자프로농구는 더한 상황이고요. 여자프로농구를 오랫동안 중계해 온 캐스터로서 어떻게 하면 여자프로농구에 기여할 수 있을까 하는 고민 끝에 ‘웅터뷰’를 시작했습니다. 지금은 주목받지 못해도 언젠가 빛을 발할 선수들을 섭외합니다. 또 시청자들에게 의외의 재미를 주기 위해 농구 관련 질문은 그다지 하지 않아요. ‘웅터뷰’가 기사화돼 중단하기는 힘들 것 같고요. 앞으로도 계속할 계획입니다.

2017-2018 시즌 전반이 마무리됐는데요, 어떤 부분에 주목하면 남은 경기들을 더 재미있게 지켜볼 수 있을까요?

김은혜 6개 팀 중 우리은행과 KB스타즈가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시즌 전에는 박지수 선수가 뛰는 KB스타즈에 많은 관심이 쏠렸는데요. 올 시즌 위기라고 판단한 우리은행이 KB스타즈와 1위 선두 싸움을 벌이며 저력을 발휘하더라고요. 후반에는 우리은행과 KB스타즈의 대결, 그리고 3위를 차지하기 위한 치열한 대결에 초점을 맞춰 본다면 흥미진진하게 즐길 수 있을 거예요.

김기웅 박지수 선수가 어떤 모습을 보여줄지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세요. 박 선수의 성장이 여자프로농구를 봐야하는 이유가 될 것입니다. 또 KDB생명과 KEB하나은행은 상대적으로 약체이긴 하지만 소속 선수들의 성장세를 기대하고 있어요. 자신감을 찾은 선수가 보이면 기꺼이 박수쳐주고 싶습니다.

여자프로농구란 어떤 존재인가요?

김기웅 다섯 살 된 딸과 같다고 할까요? 성장을 지켜보는 기쁨이 있습니다. 앞으로 여자프로농구와 KBS N SPORTS를 더욱 많이 사랑해 주세요.

김은혜 초등학교 5학년 때 농구를 시작해, 농구 하나만 바라봤습니다. 농구는 저의 인생이나 마찬가지죠. 가족과 같다고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 여자프로농구의 성장과 함께 했다는 것 자체가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KBS N SPORTS 중계방송에 ‘채널 고정’ 부탁드립니다!

특별한 크리스마스를 선사한

“그웨잇 투게더” 2017-2018 WKBL 올스타전

여자프로농구 선수들이 다채로운 볼거리와 이벤트로 꽉 찬 올스타전으로 팬들에게 특별한 크리스마스 이브를 선물했다. WKBL 창립 20주년을 맞아 ‘그웨잇 투게더’라는 타이틀 아래 KBS N SPORTS를 통해 생중계된 올스타전을 사진으로 만나보자.

경기에 앞서 역대 WKBL를 빛낸 12인을 선정해 ‘Great 12’ 기념식을 개최했다. 역사를 빛낸 선수들의 이름이 불릴 때마다 뜨거운 함성이 이어졌다.

선수들과 팬들이 함께 참여한 이벤트 매치 “올스타를 이겨라”. 풍선 빨리 터트리기와 얼굴에 붙은 종이 빨리 떼어내기 등의 종목이 펼쳐졌다. 핑크스타 박지수 선수와 블루스타 박혜진 선수가 이벤트에 참여하는 모습.

2쿼터가 끝난 직후 KBS N 염상엽 아나운서와 우리은행 엄다영 선수가 트러블메이커 곡에 맞춰 혼성 듀엣으로 커플 댄스를 선보였다.

팬 투표를 통해 선정된 선수들이 핑크스타, 블루스타로 나뉘어 맞붙었다. 선수들도 즐겁게 경기를 펼친 이날의 결과는 100-100 무승부.

산타 복장을 한 흥부자 치어리더들의 신나는 댄스 공연.

코요태 김종민이 경기 시작 전 시투를 하고 있다. 시투는 성공적으로 마무리! 이날 김종민은 빽가와 함께 WKBL 올스타전 하프타임에 축하공연을 하기도 했다.

올스타전 MVP로 뽑힌 KDB생명 구슬 선수와 국민은행 모니크 커리 선수가 WKBL 신선우 총재와 기념촬영을 진행했다.

올스타전 출전 선수들과 코치진들이 경기가 끝난 뒤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합의 판정

2017년 한국프로야구를 빛낸 양현종, 손아섭, 민병헌 선수를 만나다!

KBS N 스포츠의 유일무이한 야구 토크쇼 〈합의판정〉에 3명의 대한민국 대표 야구 선수들이 찾아왔다! KIA 타이거즈 양현종 선수, 롯데 자이언츠 손아섭 선수, 민병헌 선수까지 2017년 대한민국을 들썩이게 했던 야구선수들의 시즌 에피소드부터 한국시리즈 이야기가 지난 12월 〈합의판정〉에서 방송됐다.

왼쪽부터
민병헌 선수, 손아섭 선수,
오효주 아나운서,
장성호 해설위원,
안치용 해설위원

모든 것이 완벽했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양현종 선수!

야구팬들의 궁금증을 풀어줄 속 시원한 토크 게임 〈합의판정〉 스튜디오에 2017년 누구보다 최고의 시즌을 보낸 KIA 타이거즈의 양현종 선수가 찾아왔다. 한국인 선수로 22년 만에 20승을 기록한 양현종 선수는 정규 시즌, 한국시리즈 MVP에 골든글러브 수상까지 트리플크라운을 달성하며 그야말로 '모든 것이 완벽한 한 해'를 보냈다.

녹화 당일 한국프로야구 은퇴선수협회 수상 직후 상암 스튜디오로 건너온 터라 턱시도 차림으로 녹화를 진행한 양현종 선수는 한국시리즈 등판 소감과 함께, 이슈가 된 걸그룹 커버댄스까지 패널들의 몰아치는 질문 속에서도 센스 있게 답변했다. 또한 스스로 꼽는 20승의 비결과 2차전 당시 완봉승을 할 수 있었던 에피소드, 시즌 내내 화제가 되었던 기아 상승세를 이끈 '우주의 기운' 등 야구팬들이 궁금해할 만한 이야기들을 전해주었다.

시즌이 끝난 후 프랑스 여행을 다녀왔다는 양현종 선수는 평소 아내를 챙기는 모습으로 남자 패널들의 원성(?)을 사기도 했지만, 흔들림 없는 초지일관의 모습으로 아내에게 영상편지를 보내며 훈훈하게 녹화를 마쳤다.

손아섭, 민병헌 선수가 만들어갈 탄탄한 최강의 외야진 라인업

FA 시장에서 가장 눈길을 끈 선수라고 하면 단연 4년 98억에 롯데 잔류를 선택한 손아섭 선수와, 외부 FA 80억 계약으로 두산에서 롯데로 이적한 민병헌 선수일 것이다. 롯데 자이언츠에서 한솥밥을 먹게 된 두 선수의 궁금한 비하인드 스토리가 양현종 선수에 이어 지난 12월 15일 〈합의판정〉에서 이어졌다. 국가대표 터줏대감 외야수로 손꼽히는 민병헌 선수는 거액 연봉을 받게 된 기분이 어떠냐는 질문에 "과분하고 부담스럽지만 실력으로서 만회를 해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한다"며 "노력하는 선수로 팬 분들에게 질타를 받지 않게 잘해나가겠다"고 소감을 밝혔다. 최대한 재밌게 팬들에게 많은 이야기를 하겠다고 포부를 밝힌 손아섭 선수는 "민병헌 선수가 같은 팀으로 온다고 했을 때 팀에 부족한 수비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거라는 점과, 친한 동료이자 라이벌로 선수 생활에 도움이 될 것 같아 기분이 좋았다"라며 앞으로 같은 팀에서 뛰게 될 기대감을 전했다.

부산행을 선택한 것 외에도 같은 해 국가대표 선발과 같은 포지션(외야수), 철저한 자기관리 등 많은 모습이 닮아있는 두 사람이지만 타순에 대해서는 생각이 갈리는 모습을 보여주었다. 그동안 쭉 지켜왔던 1번 타순을 떠나 맘 편히 자신의 스윙을 하고 싶다는 손아섭 선수에 비해 다행히도 1번 타순이 자신에게 맞는 것 같다며 1번을 원한다는 민병헌 선수. 이처럼 닮은 듯 다른 두 선수는 한 시간여 동안 각자가 뽑은 상대하기 까다로운 투수와 한국시리즈 패인 이유, 메이저리그 계약 등 자칫 민감할 있는 부분들에 대해서도 성심껏 답변해주며 야구와 관련된 이야기를 할 때 행복해하는 진정한 야구인의 면모를 보여주었다.

KBS N 2017년 종무식으로 한 해 마무리

2017년도 종무식이 지난 12월 28일(목) 저녁 6시 30분부터 진행되었다. 전 임직원이 참석한 가운데 감사패 전달, 유공상, 모범상 표창이 수여되고 이준용 대표의 송년사가 이어졌다.

이날 송년사에서 이준용 대표는 “한마음 한뜻으로 헌신하고 노력해온 모든 임직원 여러분의 노고에 깊이 감사드린다”며 “2017년은 KBS N이 실·국별로 새로운 시도와 변화를 통해 콘텐츠 전문 기업의 위상을 드높이며 무한한 가능성을 보여주었던 한 해였다”라고 말했다.

또 “종무식 자리를 통해 그동안 쌓여있던 스트레스를 풀어내고 동료에게 격려와 수고의 한마디를 나눠 보며 즐겁고 뜻깊게 마무리하시길 바란다”면서 송년사를 끝맺었다.
한편, 이날 종무식자리에선 전 임직원이 함께 건배제의와 식사를 끝으로 2017년을 마무리 했다.

KBS N, 한국여자농구연맹(WKBL) 어플리케이션 운영

KBS N이 WKBL과 어플리케이션 하이브리드앱 운영계약을 체결했다. 기존 라이브 스트리밍 및 하이라이트 위주의 어플리케이션 운영을 리뉴얼을 통해 여자농구 라이브 영상 및 기획영상물 중심의 어플리케이션에 특화된 운영 환경으로 개선할 예정이다.

공동제작 프로그램 〈레드벨벳의 레벨업 프로젝트〉 태국 판매

KBS N이 공동제작한 〈레드벨벳의 레벨업 프로젝트〉가 태국 SM True사에 판매되었다. 태국에서 온라인 어플레케이션을 통해 총 23편(15분 분량)의 〈레드벨벳의 레벨업 프로젝트〉를 시청할 수 있게 되었다.
레드벨벳의 첫 단독 리얼리티 예능으로 사랑을 받은 이 프로그램은 태국에서 매일 다른 방식의 여행을 체험하는 자유 여행기로, 멤버들의 색다르고 유쾌한 모습을 볼 수 있다.

KBS N과 함께하는 별들의 향연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 생방송 시상식

KBS N이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을 방송·제작한다.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은 1990년 제1회 시상식을 시작으로, 한 해 팬들의 사랑을 받으며 가요계를 화려하게 수놓은 뮤지션들이 한자리에 모여 총결산하는 전통 있는 가요 시상식이다. 올해에는 방탄소년단, 엑소, 위너, 워너원, 블랙핑크, JBJ 등이 출연을 앞두고 기대감을 모으고 있다.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은 특히 팬들의 모바일 투표에 따라 본상과 신인상, 인기상, 한류특별상이 정해져 1달 여전부터 그 열기를 느낄 수 있다. 모바일 투표는 서울가요대상 혹은 서가대 어플을 다운받아 참여할 수 있으며, 1월 22일까지 투표가 가능하다.

〈제27회 하이원 서울가요대상〉은 오는 1월 25일(목) 저녁 7시부터 서울 고척 스카이돔에서 개최되며 KBS N은 Drama, Joy, W, myK(온라인) 채널을 통해서 생방송할 예정이다.

2017 임금협상 본회의 개최

KBS N 노사 간 2017 임금협상 본회의가 지난 12월 20일(수) 대회의실에서 개최되었다. 사측 대표를 비롯해 노측 교섭위원인 위원장, 부위원장, 노사협력국장이 참석한 가운데 2017 임금협상 본회의가 진행되었다.

황금개띠 해 무술년 내 운세는?

띠별로 보는 2018년 한 해 운세!

쥐띠 : 여러 가지 일로 바쁘지만 재능과 기지를 발휘하며 자기 자신을 믿고 일하면 주위로부터 인정을 받는 시기가 될 거예요. 큰 행운이 찾아오는 한 해이지만, 신중한 선택은 주변 사람들과 함께 상의해보세요!

소띠 : 건강과 운이 좋아 여유와 자신감을 얻게 되겠네요. 소극적인 태도에서 벗어나 많은 일을 적극적으로 해보세요! 2018년에 부지런히 뿌린 씨는 2019년에 열매를 맺게 될 겁니다.

호랑이띠 : 철저하게 준비해왔던 일들이 결과를 얻게 되겠습니다.인간관계에서 트러블이 생길 수 있으니 손해 보는 마음으로 신중히 행동하세요.

토끼띠 : 오랫동안 추진해왔던 일이 성사될 운이 있습니다. 하고자 하는 일도 잘 풀려 좋은 성과를 얻게 될 수도 있습니다. 대신 작은 문제는 대범하게 넘기는 센스를 발휘해 보세요!

용띠 : 올해는 새롭게 시작하는 한 해입니다. 과감하게 해오던 일을 정리하고 새로운 목표를 모색해보세요. 끝까지 목표에 정진하다보면 성취감을 맛볼 수 있을 겁니다.

뱀띠 : 지금까지의 문제들이 해결되고, 비로소 큰 행운이 생기는 해입니다. 승진, 경사, 취업 등 다양한 운이 기다리고 있답니다.

말띠 : 경제적으로 좋은 기운이 들어오는 시작점에 있네요. 수입과 지출을 잘 관리하세요. 침묵과 자제력으로 감정을 다스리고 가까운 사람의 말에 귀 기울여 들어보세요.

양띠 : 바로 성과가 나타나진 않지만 2018년 후반기~2019년에 큰 운이 생기는 한 해가 될 거에요. 의견차이로 생기는 다툼을 잘 넘기고, 신중하게 행동하세요.

원숭이띠 : 인생의 중요한 사건이 벌어지는 한 해로, 많은 사람들과 충분한 대화를 나누고 유연하게 대처한다면 반드시 좋은 결과가 있을 거에요.

닭띠 : 고생 끝에 낙이 올 겁니다. 끈기 있게 밀어붙이면 소망해오던 일에 좋은 성과를 얻게 될 겁니다. 주변의 도움을 많이 받는 한 해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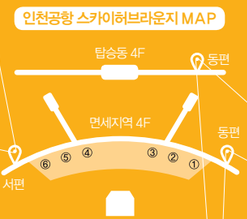
개띠 : 다툼, 고민 등 여러 일들이 중반부터 해결책이 보이고, 승진이나 사업에서도 성공적인 결과를 얻게 될 것 같네요.하지만 친구와의 갈등을 조심하세요.

돼지띠 : 자신의 힘으로 노력하고 장기적 계획을 세워 새로운 한 해를 준비해야 합니다. 금전적 이익이 있지만, 돈거래는 신중하게 하시고, 현재에 충실하세요.

N PICK

〈KBS N 매거진〉이 있는 풍경!

여행객들이 잠시 쉬어가는 인천공항 라운지 책장에
가지런히 꽂혀있는 KBS N 매거진!
라운지에서 KBS N 매거진을 보니 더 반가운 마음입니다~
KBS N 매거진은 즐거운 여행길뿐만 아니라
각 지역 공공도서관, 주민센터에서도 만나보실 있습니다.
또 집에서도 편하게 우편으로 받아볼 수 있다는 사실!
2018년에도 여러분 곁으로 한 발 더 가까이 다가가고
함께하는 KBS N이 되겠습니다!
앞으로도 많은 관심과 사랑 부탁드립니다.



KBS N 매거진을 모바일에서도 만나보세요!
http://www.kbsn.co.kr/magazine.do

웃음이 희망입니다
KBS N

콘텐츠 전문 기업으로
도약하는 KBS N

KBS N은 KBS Drama(드라마),
KBS Joy(엔터테인먼트),
KBS N SPORTS(스포츠), KBS W(여성),
KBS Kids(어린이), KBS N Life(교양, 다큐),
KBS N Plus(OTT)로 전 연령층이
즐길 수 있는 전문 채널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전세대들이 즐길 수 있는 콘텐츠를 통해
함께 공감하고 소통하며,즐겁고 유익한 세상을
여러분께 선사합니다.

KBS drama KBS joy KBSN SPORTS KBS W KBS Kids KBSN Life KBSN PLUS

광고사업, 공연/문화사업, 스포츠사업, 브랜드사업, 키즈사업, 콘텐츠유통사업